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교학품(敎學品) ③

學而多聞 학이다문
持戒不失 지계부실
兩世見樂 양세견예
所願者得 소원자득

배움 길에 법을 많이 듣고
계를 지녀 흐트러지지 않으면
이승 저승에서 기쁨을 받아
원하는 것 모두를 얻는다

學而寡聞 학이과문
持戒不完 지계불완
兩世受痛 양세수통
喪其本願 상기본원

배움길에 법 듣는 일 적고
계를 지녀도 완전하지 않으면
이승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니
본래 원하는 것 잃고 만다

夫學有二 부학유이
常親多聞 상친다문
安詳善哉 안체향재
雖死不懼 수곤불사

잡초가 벼 해치듯 욕심이 배움 방해

악 뽑아없애면 반드시 거들것 많다

무릇 배움에는 두 길이 있다
항시 설법 많이 들길 좋아하고
바른 이치 잘 살피고 알면
비록 고생스럽더라도 사퇴진 않으리

仰聞善法 제파해화
多欲妨學 다욕방학
經說善惡 경설선악
成敗必多 성수필다

잡초와 피가 벼를 해치듯이
많은 욕심은 배움을 방해한다
갖가지 악을 뽑아 없애면
거들 것이 반드시 많으리라

應而後言 라이후언
辭不強梁 사부강량
法說善惡 법설선악
言而美進 언이막위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하되
그 말에 억지가 세어서는 안된다
법을 말하고 이치를 말하되
말한것이 행에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善學無忌 선학무범
畏法難聞 외법호기
見微知者 견미지자
誠無後患 계무후환

올게 배워서 범하지 않고
법을 두려워해 꺼릴 줄 알며
미세한 경지까지 볼 줄 알면
경계함에 뒷말이 없으리라

進修罪福 인사죄복
務成修行 무성법행
終身自攝 종신자섭
是名善學 시명선학

죄와 복을 다 멀리 버리고
부지런히 힘써 범행이루어
종신토록 재물 다잡으면
이를 이롭게 참 공부라 한다

다문품(多聞品) ①

多聞勝諸대 다문승지교
奉法爲增봉법위인장
精進難壞정진난유해
從戒成慧從시계계성

많이 들어 이를 견고히 지킬 수 있고
법을 받들기를 단정 돌려친듯 하면
그 부지런한 노력은 허물기 어렵나니
이로부터 계행과 지혜는 성취되도다

多聞志勇 다문열지영
已明智慧已명지혜중
智則勝義 지즉박해의
見義行安 견의행안

많이 들음은 뜻을 밝게하고
밝아지면 지혜가 날로 늘어나니
지혜는 곧 이치를 널리 알아라
이치를 알면 행이 그대로 법다우리라

多聞除憂 다문제우
能以定爲能以정위환
善說甘露法 선설감로법
自致得阿羅 자취득니원

많이 들음은 근심을 없애주고
선정으로써 즐거움을 삼계한다
감로법을 잘 살피고
스스로 열반에 들게한다

聞爲知法律 문위지법률
解疑亦見正 해의역견정
從聞捨非法 종문사비법
行到不死處 행도불사처

많이 들음은 법·율을 알게하고
의심을 풀고 바른 길을 보게하니
들음으로써 비법을 버리고
열반 경지에 이르게 한다

덕 암스님 (태고총림 방장)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를 아십니까 정치가들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이제 완전한 불입이다. 곧 꽃들이 활짝 필테지요. 자연의 순환이란 참으로 어김이 없습니다. 강원에 있을 때가 생각나곤 합니다. 철원 심원사 강원에 있을 때 방학만 되면 농촌에 나가 밭을 갈아 작물을 심으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해 달라고 빌곤 했었죠. 가을 끝에 단비가 열나고 고마운 존재인지는 가뭄의 고통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이곳 법륜사는 내겐 단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곳이지요. 이곳은 70년동안 중노릇을 무사히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 말입니다.

사실 중노릇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면 되는 것이죠. 나는 중이면 중답게 공부나 열심히 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부럽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평소 소신대로 공부에만 몰두했지 다른 것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디다. 그래서 그런지 책임은 것을 빼놓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나마 나이가 드니까 눈이 어두워져 요즘엔 책을 가까이 할 수 없으니 안타깝기만 해요.

우연치 않게 출가해 부처님 공덕으로 85년을 무사히 살아왔음도 다 인연이 닿았기 때문이지요. 태어난 곳은 경북 문경군 농암면 삼송리라는 마을로 지금은 충북 괴산으로 편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태어나면서부터 병치레를 끼니먹듯 했나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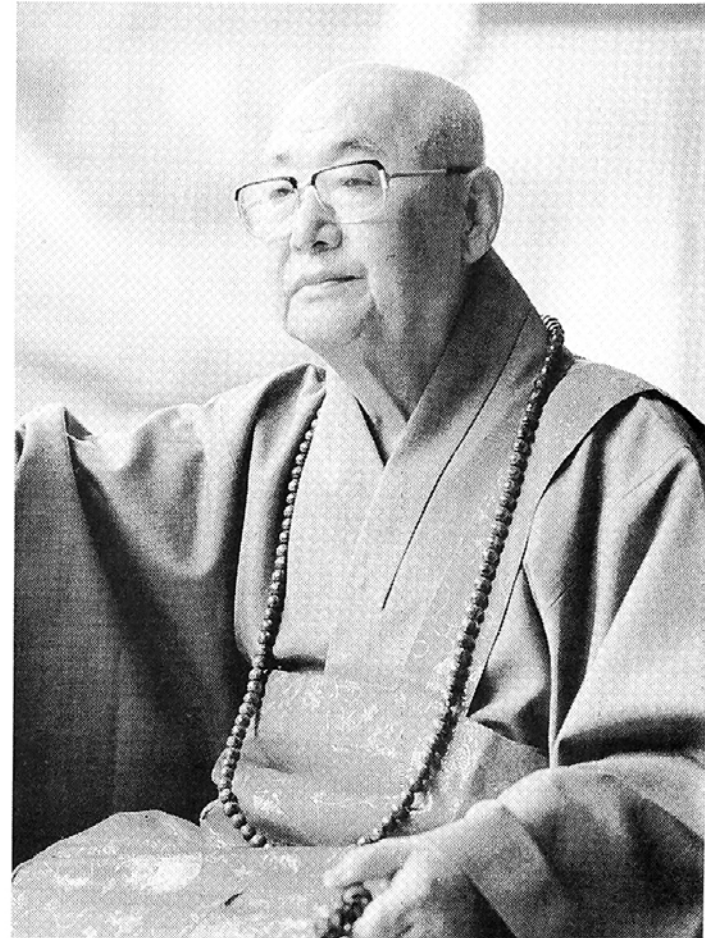
그때 어떤 이가 이 애는 얼마 살지 못해 죽을 운명이라고 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있는 원직사를 찾았다고 해요. 원직사 스님들이 우리 집에 와서 공양도 하고 잠도 자고 하면 때라 그 인연으로 찾았지요. 그랬더니 원직사 석고스님이 출가를 시키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해 14살 되던 해 원직사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집안 어른들에 의해 부처님께 귀의하게 된 셈이지요.

30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벽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철원 심원사 화산경원이라는 불교전문강원에서 7년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유점사에 있을 때 벽산스님은 “금강산에서 1년만 살아보면 온 천하의 변화무쌍한 진리를 한 눈에 볼 수 있

다”는 말씀을 해주곤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진리를 한 눈에 보지 못하는 탓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죠. 날씨가 변하듯 세상 역시 잠시도 그대로 머물지 않아요.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우리 정치가들은 어떻습니까. 나라와 국민이 잘되려면 넓고 통달한 지혜를 가진 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늘 혼란스럽죠. 유점사에서의 2년여의 수학기간은 세상을 배우고 삼의 경책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체험이었습니다.

- 1914년 경북 문경 생
- 1930년 벽산스님 은사로 출가
- 1942년 철원 심원사 불교전문강원 일 주
- 1970년 태고종 총무원장 역임
- 1986년 태고종 종정 역임
- 현 시간총 법륜사에 주석



“사람들은 나를 원로라 부릅니다 그러나 행자들과 다름없어요 똑같이 계 지키고 정진해야 하니까요”

화산경원에서의 수학은 지금까지 교학에 몰두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미과, 사달과, 사교과, 대교과를 차례로 거치면서 세상의 진리가 부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선(禪)보다는 교(敎)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지요. 중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것이라는 확신도 이때 생겼습니다.

경(經)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되는 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스님들을 보면 경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禪)만 해가고 부처님 말씀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경(經)도 배워야만 부처님 법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해서 한소식 한 다 해도 경을 모르면 그 깨달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經)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경에 중점을 두었지만 틀림이 화두를 들고 정진을 했습니다. 지금은 ‘무(無)자 화두를 들고 있지만 전에는 ‘만법귀일(萬法歸一, 歸一何處)’라는 화두로 좌선에 들곤 했지요.

한국불교는 원래 선교겸수입니다. 교를 철저히 깨닫고 나서 그것을 버리고 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교인선(捨敎入禪)’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교(敎)가

서원에서 선암사까지 가는 길을 가장 빠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선(禪)은 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한가지 더 계(戒)가 필요합니다. 계가 없으면 선(禪)도 교(敎)도 없기 때문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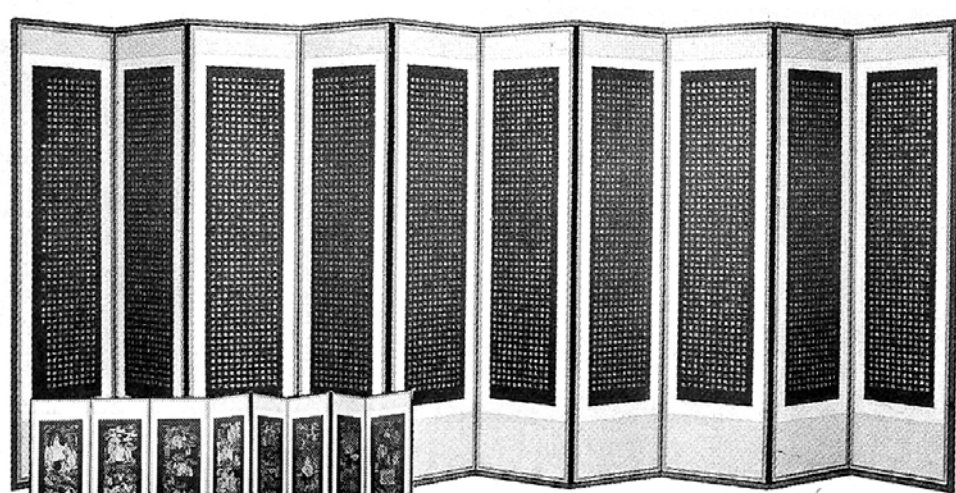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락 세계에 가려면 사바세계를 면할 수 있고, 거기에 가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길이 열리고, 그래야만 다시 한 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도를 닦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사람의 씨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듯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아닌 생명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목숨이 존귀함을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라 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인과

위없이 높고 거룩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병풍에 담아 불자님께 전합니다!

금강경 10폭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병풍 - 금강경
지금 가격 부담 없이 가까이 모시세요



- 전면: 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경을 영인본 전서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석가세존 일대기를 금화로 조성하였습니다.
- 규격: 높이 180cm 폭 439.5cm
- 재질: 스키목 양면 고급 비단 ■ 가격 ₩490,000

성보 八相錄 8폭 병풍

살아있는 병풍 - 팔상록



- 규격: 높이 55cm 폭 12cm ● 재질: 스키목/고급 공단 ■ 가격 ₩300,000

佛說大報 부모은중경 10폭 병풍



- 작품: 수인용주사 목판본
- 규격: 높이 58cm 폭 15cm
- 재질: 스키목 / 고급 공단
- 가격 ₩480,000

후면: 반야심경(추사체) 기획·제작 전문 불사의 집 三田佛事 대표전화 (02)732-6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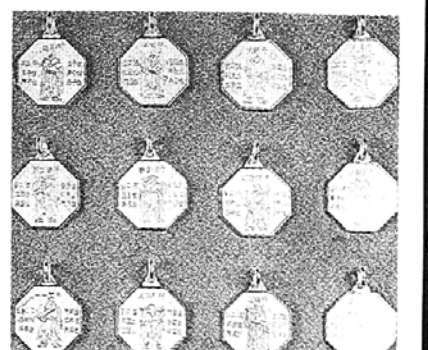
운명의 길을 열어주는 보살기(氣) 띠부적 메달

띠부적이란?

인간은 누구나 12간지에 따라 12년을 하나의 주기로 운명의 변모를 합니다. 12년마다 되풀이오는 자신의 운명주수의 변동을 인연보살 천지인의 기로써 천운의 길로 돌려 놓는 불가사의한 부적이니니다. 각 띠별로 자신의 계도를 미리 알아 매사를 성사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 (子) 쥐띠(만복보살)
- (丑) 소띠(천수보살)
- (寅) 범띠(대관보살)
- (卯) 토끼띠(수령보살)
- (辰) 용띠(관세음보살)
- (巳) 뱀띠(관자재보살)
- (午) 말띠(여의보살)
- (未) 양띠(대세지보살)
- (申) 원숭이띠(심연보살)
- (酉) 닭띠(군다보살)
- (戌) 개띠(정척보살)
- (亥) 돼지띠(아미타불)

- 앞면: 띠인연보살상 ● 뒷면: 띠별심이지수상



- 재질: 순은 99.9%(약 7돈 체인포함) ■ 가격 ₩48,000